

‘아내 살해 혐의’ 복역 19년만에 재심 결정 났는데...

급성백혈병 투병하던 무기수 형 집행정지 결정난 날 숨져 검·경 ‘진도저수지 살인사건’ 위법·부실수사 사실로 드러나 17일 궐석 재판...변호인 측 “오해 풀어주고 명예회복 최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년 동안 복역중이던 남편이 재심을 보류 앞두고 숨졌다.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변호인이 “재심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결국 명예회복의 자리에 서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7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일명 ‘진도 저수지 살해 사건’ 남편 A(66)씨는 지난 2일 오후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군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A씨는 재심이 결

정돼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첫 재판을 앞두고 3월말 해남교도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해남교도소에서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결과 이상조건이 나와 해남의 종합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1일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항암치료 도중 폐부종으로 결국 2일 오후 중환자실에서 숨졌다고 한다.

지난달 말 A씨는 박준영 변호사와의 영상접견에서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A씨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터가 있는 충남 아산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의료공백 사태로 여의치 않아 전남대병원에서 A씨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1일 박 변호사가 입원 치료중인 A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을 때 A씨는 박 변호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A씨의 형집행정지는 그가 숨진 오전에서야 진행됐다. 결국 그는 사망 당일까지 원순·원발에는 수갑을 차고 오른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9일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 방향으로 가던 중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아내는 숨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봤으나 증거

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도 이첩했지만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수면제 2정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인 뒤 차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B씨를 차량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숨지게 했다고 봤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부부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보험액이 9억원에 달하는 점을 살인 증거로 판단했다. 차량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조이는 볼트를 미리 빼 둔 점과 B씨의 부검 결과도 인용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19년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입증했던 간접 증거들

을 사실상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경찰이 차량 견인날짜를 소급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화물차 전면 유리외 내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 손상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증거였지만 대법원은 부정했다.

A씨가 먹었다고 판단된 수면제도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부인됐다.

A씨가 숨졌지만, 재심재판은 오는 17일 해남지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일반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숨지면 공고기각 결정이 되지만 재심의 경우 명예 회복 차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A씨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A씨를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면서 “A씨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 정취 만끽 휴일인 7일 광주시 동구 조산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해 시민들이 산책하며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내일 가동

광주 동구, 10월 31일까지

광주시 동구는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음악분수가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가동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올해는 기존 음악분수 레퍼토리에 31곡을 추가해 총 81곡의 음악분수 연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분수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1회 운영되며,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낮 12시 30분, 오후 7시 30분, 밤 9시 30분 등 총 3회씩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지한다.

5·18민주광장 분수대 물줄기에 빛을 쏘아 미디어아트를 상영하는 ‘빛의 분수대’도 지난 5일

부터 재가동됐다. 빛의 분수대는 매일 오후 8시 15분에 운영되며 월요일에는 준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노후화된 5·18민주광장 내 분수대를 재정비하는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추진해 분수대를 미디어아트 영상, 수중 포그 레이저 쇼 등을 종합한 음악분수로 조성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뒤 동절기 등과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

분수대는 지난 1971년 민주광장에 686.75㎡(지름 19.3m, 높이 2.32m) 규모로 지어졌으며, 1980년 5월 당시 시민궐기대회, 민족·민주화대성회 등이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로 5·18사적지 5-2호로 지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카트에 있다 동반자 공에 맞아 실명...캐디 ‘유죄’

카트에 있던 골프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카트 하자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골프장 캐디 A(여·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여·34)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한 재판부의 판단은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였다.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잡이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초여름 날씨

오늘 낮 최고 25도까지 오를 듯

8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치솟아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이다.

이후 9일 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일주일 내내 낮 최고기온이 20~23도 사이에 분포해 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 날씨는 중국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8일 낮 최고기온은 21~25도를 보이고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기온 4~9도, 최고기온 16~19도)보다 높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대기가 정체됨에 따라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는 8일 오전 ‘한때 나쁨’, 초미세먼지는 오전 오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9일에는 광주·전남에 초당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특히 남해서부동쪽만바다에서 9일 새벽부터 초당 8~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1.0~3.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분간 서해남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ey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